

# 행복한 결혼생활

What Will Make My Marriage Work?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성장 시리즈 7

# 행복한 결혼생활

What Will Make My Marriage Work?

한국 오늘의 양식사



#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	4
세상 사람들의 고백 .....	7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	11
10가지 성경적 기초 .....	15
1) 평생의 약속 / 17	
2) 하나가 됨 / 19	
3) 절대적 순결 / 21	
4) 구별된 역할 / 23	
5) 아낌없는 사랑 / 27	
6) 서로에게 복종 / 31	
7) 만족스런 성생활 / 34	
8) 열린 대화 / 37	
9) 존경 / 41	
10) 영적 동반자 / 43	
결혼에 관한 다섯 가지 사실 .....	47
남편과 아내의 체크리스트 .....	53
첫 걸음을 시작하며 .....	57

## 성공적 결혼 생활의 원리와 방법



사람은 결혼을 자신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은 인간 남녀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의 목적과 의도와 방법을 이해하고 따라야 행복한 결혼 생

활을 누릴 수 있지 디자이너와 무관하게 우리 나름대로 접근하면 고장이 날 것은 뻔한 일이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공적 결혼에 필요한 10가지 요소를 너무도 명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결혼 생활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희망을 주고 있다. 원래의 디자인을 잘 터득하면 할수록 또 그 디자인에 따라 자신들을 훈련하면 할수록 결혼 생활이 원만해질 것은 확실하다. 여기 설명한 내용들은 인기 잡지에 여론이나 기호를 중심해서 쓰여진 글들과는 다르다.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원리와 방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다. 이대로 배우

고 실천해서 실패한 결혼은 없다. 모든 실패하는 결혼은 여기 쓰여진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책자는 결혼할 젊은이들이나 이미 결혼한 가족을 위해 간단하면서도 도움이 되도록 쓰여져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책자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결과적으로 유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 상 복 목사

##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결혼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데이빗 에그너 목사님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이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매 페이지에 담긴 해답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1

## 세상 사람들의 고백

결혼 생활이 시들해지면 이에 대한 부부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들겁니다. 이젠 더이상 이 고통을 참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더 당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나도 헤어지는 것이 낫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우리도 온갖 방법 다 써보았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



있어요. 그 남자는 자기 멋대로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습니다. 헤어지는 길밖엔 없어요.

지금은 21세기예요. 20세기초가 아닙니다. 결혼도 그때와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결혼식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살아보고 싫으면 그만 두면 되는 거죠. 여기에 뭐 도덕 같은 걸 운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혼율을 보세요. 모두들 이혼을 해요. 유명한 크리스천마저 그렇고요. 그런데 왜 나 혼자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뎌야 하나요? 나 혼자 예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엔 좀 더 자극이 필요해요. 우린 서로 상대방에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밖에 나가 남하고 좀 사귀다보면, 글썄요... 우리 결혼 생활에 좀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저기 카운셀러를 찾아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만나봤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맞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

**“결혼이란 바른 상대를 고르는 것보다는 당신 자신이 바른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찰리 세드

---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이 잘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술을 한잔씩 하면 그런 대로 참을 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잘 되겠지요.

나는 본래 불행하게 살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면 글썄요 나도 집을 나갈 용기가 생기겠지요. 그때까지는 내색하지 않고 꼭 참고 지내야지요.

이혼, 외도, 상담, 술, 약물, 체념. 사람들은 결혼 생활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결혼 생활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여기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침 곧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화해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여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분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분은 당신을 바람직한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 2

#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 주셨을 때 최초의 결혼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창조해 주신 낙원에서 부부 생활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18, 21, 22)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도와 그의 완성을 이루게 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말로 배필이라고만 하면 히브리 원어에 담긴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

여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삶의 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이 말이 상대방을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첫번째 결혼에 있어서 한 여인이 남자의 삶을 완성케 한다는 것은 이 남자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구해준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하와는 자격을 갖춘 동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한 남자에게 어울리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는 찰스 스윈들의 비유처럼 “아담의 삶의 퍼즐에서 잃어버렸던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최초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는 모든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 : 24, 25

---

- 떠남의 법칙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듯이 결혼하는 사람은 부모를 떠납니다.
- 연합의 법칙 :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것은 결혼을 함으로써 영원히 접착되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됨을 말해 줍니다.
- 한몸이 됨 : “둘이 한몸을 이룰지라도.” 두 사람은 이제부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가족 관계 대신 새 가정이 시작됩니다.
- 친밀해짐 :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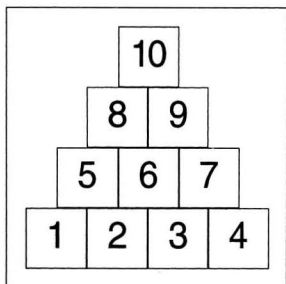
하니라.” 이들은 자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으므로 아무런 주저나 거부감 없이 상대와 더불어 서로 즐거워하고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 줄 수 있었습니다.

### 3

## 10가지 성경적 기초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 나머지 일들은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성공적 결혼에 필요한 10가지 기초를 알아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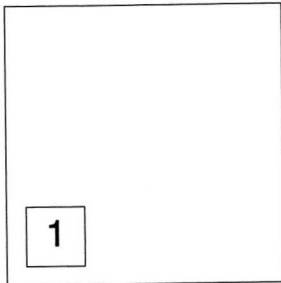
1. 평생의 약속
2. 하나가 됨
3. 절대적 순결
4. 구별된 역할
5. 아낌없는 사랑
6. 서로에게 복종
7. 만족스런 성생활
8. 열린 대화
9. 존경
10. 영적 동반자

이 10가지 기초에 대하여 공부할 때 이것이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더불어 이 원칙을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7:12~16).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덮어두지 말고

이 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십시오.



## 기초 1: 평생의 약속

행복한 결혼의 첫번째 성경적 기초는 남자와 여자가 평생 동안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녀가 정혼을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부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태복음 19:4~6)

예수님은 그 다음 이혼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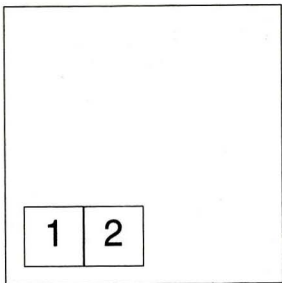
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8, 9절)

그러므로 혼인의 서원은 평생 동안 정절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오늘부터”라고 한 서원은 평생 동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전도서 5:4 참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일년밖에 안 되었는데 여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깊이 생각한 끝에 남편에게 “부담없이 떠나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인해 아내는 죽기까지 몇 해 동안 행복하고 특별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라고 서약한 것은 진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 기초 2: 하나가 됨

행복한 결혼의 두번째 성경적 기초는 남녀가 그들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남자 혼자서, 또는 여자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새로운 연합,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인을 데려왔을 때 그들이 한몸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창세기 2:23)

바로 다음 절에는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24절)라는 말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서로 습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교육받은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속에 간직한 마음의 상처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헤아려 주려는 헌신된 삶에 있다.”      -로렌스 크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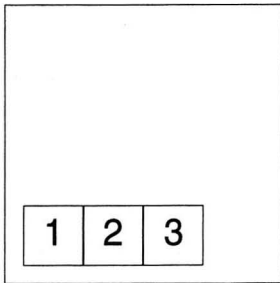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복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생산 조립 공장의 규격화된 상품과는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독자적인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아담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녀만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부족한 점은 하와만이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녀가 연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 용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끝없이 지속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혼으로 하나가 되어 성숙한 단계에까지 이르려면 시간과 사랑, 인내,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더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 남자가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투숙할 때에도
-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 남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에도
- 여자의 몸에서 이상한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 남자가 직장에서 진급을 했을 때에도

• 여자가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들은 각자 분명히 다른 개성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삶을 살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질성을 나누어 가진 사이입니다.



### 기초 3: 절대적 순결

결혼이란 동질성을 가진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절대적으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신실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와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잠언 6 : 27~29)

성경은 육체의 순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교회의 나이든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디도서 2:4, 5).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신을 남편 한 사람에게만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여섯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출애굽기 20:14). 예수님도 젊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에서 바로 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9:18). 바울도 육신의 죄 가운데 첫번째로 음행을 들었습니다.(갈라디아서 5:19)

결혼의 순결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순결을 지킬 것을 당신에게 서약하노라”라고 말한 결혼식에서의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할 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확실할 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사랑하기로 맹세한 그러한 사랑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동자처럼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 말고 그 누구와 이런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마이크 제이

슨저 「결혼의 신비」, p.106)

결혼의 세번째 기초인 절대적 순결이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 우리는 사랑을 배우자에게만 쏟는다.
- 작은 일에도 진실함을 잃지 않는다.
- 다른 사람과 빗나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혹은 처음부터 피한다.
- 마음 속의 공상도 억제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 순결이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동산에서 부부로 살았던 그때에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절대적 순결은 모든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 **기초 4:**

#### **구별된 역할**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졌으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오늘



1	2	3	4
---	---	---	---

의 아내들은 흔히 들으며 삽니다. 남편들도 자신부터 먼저 돌보아야지 아내 걱정은 나중 일이라는 풍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삶의 지침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대로만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고린도전서 11 : 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에베소서 5 : 23)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남자가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되 독재적이거나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 사랑 가운데 발휘할 것(에베소서 5 : 25 ; 골로새서 3 : 19)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본을 따를 것(에베소서 5 : 25)
- 아내를 깊이 이해할 것(베드로전서 3 : 7)
-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 것(골로새서 3 : 19)
-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같이 할 것(에베소서 5 : 28)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한 것은 남자가 더 윗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 11 : 3).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은 그 본질이 하나이고 두 분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한 것은 고유의 역할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결혼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우선권이 남편에게 주어지므로 대립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머리에게는 커다란 책임이 주어집니다. 남편은 애정과 자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내의 역할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에베소서 5:22; 골로새서 3:18)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베드로전서 3:1)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디도서 2:4, 5)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채워주고 만족케 하는 사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디모데전서 2:13) 아내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고린도전서 11:3; 에베소서 5:23). 이렇게 하여 아담은 리더가 되고 하와는 아담을 리더로 삼음으로 둘의 역할이 완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창세기 2:18; 고린도전서 11:8, 9)

집안에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여인은 스스로 불순종하는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율과 성서의 일관된 가르침을 거슬리면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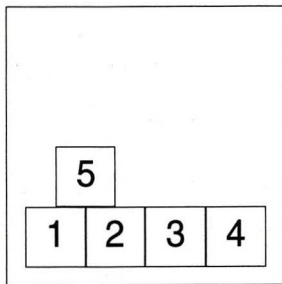
행복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역할을 바로 할 때에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필연적인 역할 기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요한복음 14:28)

고 하시면서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한복음 10:30)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복종시켜 아버지가 이끄시는 데로 맡겼습니다.

결혼도 이와 비슷합니다. 남편은 머리가 됨으로 역할을 다 하는 것이요 아내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을 것이요 이런 가운데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 기초 5: 아낌없는 사랑

결혼의 다섯번째 기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 가슴속에서 나오는 사랑,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상대의 행복을 나의 행복보다 먼저 생각하고, 같이 사는 동안 기쁨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상대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이인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각별히 여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라고 짧게 당부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레테의 나이트 부인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디도서 2:4)

부부간의 사랑은 맹세를 주고 받거나 반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를 같이 살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사귀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가운데 물론 멋지고 깊은 사랑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는 사랑이라는 것이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과 보다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노력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이 구절은 모든 인간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부부 사이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진수를 부부의 사랑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 사랑은 오래 참고 남편이 멍청한 짓을 해도 다시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 사랑은 온유하며 아내가 힘들 때에 선뜻 나서서 설것이를 합니다.
- 사랑은 남편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아내가 상냥하다고 칭찬받을 때 투기하지 않습니다.
- 사랑은 큰 돈을 벌거나 골프를 제일 잘 쳤을 때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내가 자동차 고장을 내어도 아내 말을 믿어 줍니다.
-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단들이 있을 때나 남들 앞에서나 남편에게 공손히 대합니다.
-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쉴 때에도 아내의 장보기를 도와줍니다.
-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남편이 소리를 높여도 나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빨리 용서하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대를 강요하여 나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칩니다.
-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남편에게 미심쩍은 일이 생겨도 선한 쪽으로 해석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남편이 일자리를 잃어도 함께 키워온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역경과 괴로움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젊음과 건강과 활력은 사라져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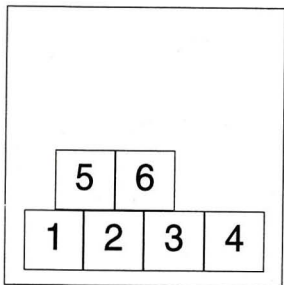
예수를 믿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믿고, 바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법칙을 가장 깊게, 가장 진실되게, 가장 많이 체험할 상대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 선택한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서도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나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느끼면 사랑이 힘들어집니다. 나 혼자만 베풀고, 희생하고, 지탱하려고 애쓸 때에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의 고집이나 교만, 이기심 때문에 사랑이 일방 통행으로 그친다면 참기 힘든

일입니다. 털어놓고 말을 해보려 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포기해야 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의 남김도 없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 기초 6: 서로에게 복종

성경 해석학자들 중에는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이 말씀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 18, 21)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글이었습  
니다.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원칙을 여러 가  
지의 경우에 적용하였는데, 그 첫째가 결혼 생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혼인 서약을 함으로써 평생토록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  
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  
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보여 주신 그 엄청난 겸손과 복  
종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5~8)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부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  
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뜻에 복종하는 것  
입니다. 부부는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과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면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 결혼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고 받는 사이이  
다.
- 결혼은 자기 의지와 씨름하는 곳이다.
- 결혼은 자기를 이기는 훈련장이다.
- 결혼은 섬기는 자가 되는 곳이다.
- 결혼은 포기하고 양보하는 곳이다.
- 결혼은 아내가 힘들 때 부엌일을 대신 하는 곳이다.

• 결혼은 남편이 아끼는 옷을 손수 세탁해 주는 곳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여자가 가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맡았다고 해서 자신을 집안의 하인처럼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남편도 자기 집을 자기가 군주로서 다스리는 하나의 성으로 여기거나 아내와 가족들을 자기의 신하처럼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와 반대로 남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므로 집안의 가장이라는 위치는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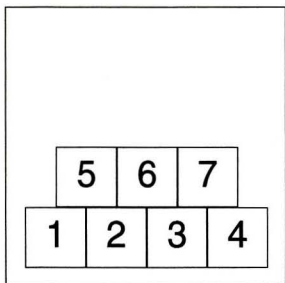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 인이란 결국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 기초 7:

### 만족스런 성생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땅을 충만히 채우라는 명령도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 아니하고 서로가 육체의 만족을 누리려는 것은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대와 더불어 성적으로 만족을 찾는 사이입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순결을 보호하는 역할** 남편과 아내는 부끄럼없는 이 특별한 관계를 오직 배우자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되 또한 값없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이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장치도 별로 없습니다. 광고도 저속하기만 합니다. 텔레비전도 성의 타락을 조장합니다. 육신의 것을 더욱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대담해졌습니다.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는 성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서로 상대방을 탈선으로부터 보호해 주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정절을 보호하는 사이입니다.

---

“부부의 성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생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찰스 스윈돌

---

즐거워야 하는 성생활 잠언의 저자는 매춘에 대하여 무섭게 경고하면서 젊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잠언 5:15~19)

결혼 생활에서 성이란 다만 자식을 낳기 위해 영위해야 하는 필요악은 아닙니다. 성이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를 깊이 알고, 환희를 경험하며, 둘 사이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기쁨을 두고두고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적 만족은 부부의 권리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는 각기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히 성의 충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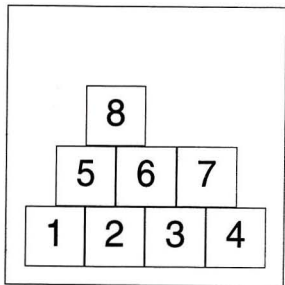
(고린도전서 7:3, 4)

바울은 또 말하기를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금욕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떨어져 지내는 기간도 길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7:5)

성의 충족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을 가져온 죄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이란 그 중요성이 과장되어서도 안 되며 또한 과소 평가되어도 안 됩니다. 성이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친밀함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큰 그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 기초 8: 열린 대화

몇 해 전 가정 봉사협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 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사람 중

87%의 사람이 대화의 문제를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숫자는 아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힘으로는 남편이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하며 좌절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말을 해 보았자 아내가 이미 마음을 정해 놓고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 따져서 바로잡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 모든 관심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
-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한다.
-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대화를 가로막는 어떠한 방해물도 없애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결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요한복음 1:1~4).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씀과 육신으로 나타내 알게 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뜻과 인격을 사람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의 대화에 항상 관여하십니다. 그 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히브리서 4:16)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다 고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대화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
- 아내도 남편에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
- 두 사람 모두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대화에 응해야

한다.

- 모든 문제는 다 털어놓고 말해야 한다.
- 대화의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열린 대화 없이 바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몸의 모든 지체와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경 조직을 통하여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손가락에 명령하여 필요할 때 움직이게 합니다. 또 손가락이 아프면 그 사실을 곧 전달받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지체는 하나인 것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머리로서 자기의 아내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에 화답하여 남편과 자유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대화하신 것처럼 부부 사이에 양방향 대화가 있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심리학자인 폴 튀니어는 결혼 생활의 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부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것뿐이다. 남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과 같은 것들뿐이다.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대화란 자신의 감정, 자신만이 가진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뿐 아니라 남편의 감정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남자는 자기의 감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내의 말 들어주기」에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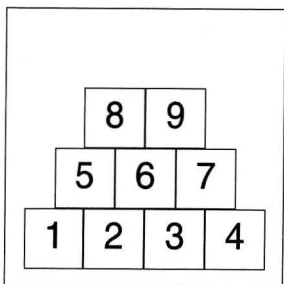
- 당신이 대화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 전에 했던 말은 다시 늘어놓지 않는다.
-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 차차 감정에 대하여, 결론적인 것에 대하여 말한다.

항상 터놓고 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노력을 통해서 얻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열린 대화는 결혼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 기초 9 :

### 존경

부부는 때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됩니다. 남



들 앞에서는 사려있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참을성을 보이기도 하고 온순한 성품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문을 닫으면서부터 못된 성격과 심술과 용서 못하는 습관으

로 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남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여 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에베소서 5:33)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아내들에게 이끄기를 남편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좋은 본보기로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베드로 전서 3:1, 5, 6) 그 행실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남편들도 아내들을 똑같이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 **(1)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것은 “아내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아내의 생각을 늘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들은 이와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아내를 억누르기보다는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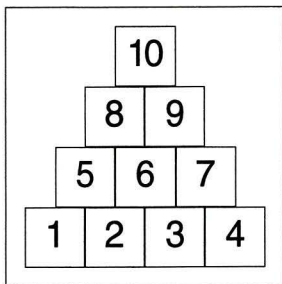
### **(2)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

사람이 다섯 개의 그릇을 옮기면서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특별히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면 그 하나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룰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와 같이 대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특별히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꽃을 보내고 생일을 기억하고 좋은 곳에도 함께 가십시오.

### **(3)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생명의 은혜는 남편만이 누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므로 함께 누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여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창조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 기초 10: 영적 동반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신들을 영적 동반자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듯이, 부부는 손에 손을 잡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영적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남편과 헌신적인 아내가 부부를 이룬다면 얼마나 결혼 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부부가 인생의 행로를 함께 가면서 서로 주고 받는 영적인 도움은 이루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 온 결혼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에 영적인 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에 대한 말을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

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에베소서 5:25~28)

결혼에는 정결과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더 정결케 된 것같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더 아름답게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도우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내 주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것이 바로 결혼이 다른 어느 것보다 다른 것이며 진정한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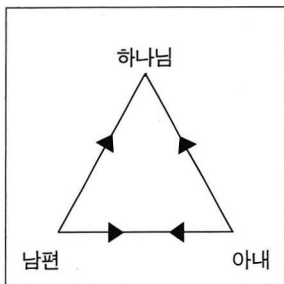
베드로도 결혼에 관한 구절에서 영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존경하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여길 때 능력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의 기도는 “방해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적 동반자로서 살 때의 결혼 생활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 하나님께 함께 예배한다.
-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한다.
- 그리스도를 함께 섬긴다.
- 자녀를 함께 키운다.
-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
-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
-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와 성경읽기와 친교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부부 사이도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상관 관계는 삼각형의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장할수록 부부 사이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 4

### 결혼에 관한 다섯 가지 사실

목사나 결혼 상담자들은 남편과 아내들이 결혼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문제에 직면한 부부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결혼에 관한 다섯 가지 사실을 여기에 알려 드립니다.

#### (1) 당신은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가 바른 배우자를



만난 것인지 의심하는 아내, 내가 실수로 이 여자를 만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체로 결혼 초기에 가졌던 이상과 살면서 나타나는 현실 사이에서 적응해 나가는 시기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 아내가 음식 만들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남편이 간단한 기계 수리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돈을 쓰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된다.
- 상대방의 성격이 고집이 세고, 쉽게 토라지고, 기분나빠 하고, 화를 잘 내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런 것을 문제라고 해서 안됩니다. 당신은 벌써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은 다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실을 제외하고는 결혼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4~9; 고린도전서 7:10~14)

## **(2) 남편이 앞장서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순종해서 안된다**

한 젊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그이가 바

르게 앞장서 나가기만 했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이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이는 매사에 비난을 하는데, 난 더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는 한 가지 옳은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머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남자가 리드해 나가야 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아내가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아내의 책임은 여전히 내면의 미덕을 키우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영적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6). 남편이 리드하지 못한 점을 구실로 하여 아내가 합당치 못한 행실을 할 때 아내도 남편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 **(3)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이 할 일을 안 해서는 안된다**

어떤 남편들은 무슨 단점이나 실수가 드러나면 습관적으로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 “아내는 혼자만 경건합니다. 남편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언제나 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내 때문입니다.”

- “아내가 이 집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 집을 산 건데, 우리의 돈 문제는 다 아내 때문이지요.”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집안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물론 아내가 어떤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요. 고집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것을 어떤 핑계로 삼으면 안됩니다. 아내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 (4) 남자라고 섹스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일이 많아서 바쁘기만 한 아내들은 이따금 남편이 바라는 것은 오직 성적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느낌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 남편이 대체로 일에만 빠져서 산다.
- 집이 너무 커서 아내가 청소하는 데 힘이 든다.
- 남편이 아이들 돌보는 데 무관심하다.
- 부부가 모두 하루 종일 바쁘다.

물론 아내에게 육체적 욕구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남편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이 문제를 과장하고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

을 조금씩 바꾸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솔직히 말하십시오. 주말을 밖에서 보내거나 짧은 여행을 함께 다녀오십시오. 또 문제를 더이상 덮어두지 말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 (5) 아내라고 치장에만 정신을 쓰는 것은 아니다

결혼에 관한 다섯번째 사실은 여성이라고 겉모양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평합니다.

- “아내는 집안에 장식할 물건이라면 뭐든지 새 것을 사옵니다.”
- “옷을 하나 고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 “함께 외출 한번 하려면 얼마나 꾸물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지각하지요.”
- “아내는 쇼핑을 좋아해서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시시한 장신구나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써 버립니다.”

여성이 외모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이 “마음에 숨은 사람”(베드로전서 3:4)에 대하여 마땅한 관심을 쏟지 않고 외모에만 치중하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덤벼대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들이 남자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5

# 남편과 아내의 체크 리스트

---

### 남편들의 체크 리스트

---

남편들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남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배웠으므로 잠시 자신을 평가해 봅시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하십시오. (5-아주 잘함, 4-잘함, 3-보통, 2-잘 못함, 1-못함)

- 1 2 3 4 5 나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였다.
- 1 2 3 4 5 나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내 아내와 하나라고 생각한다.
- 1 2 3 4 5 나는 행실뿐 아니라 마음 속으로도 순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1 2 3 4 5 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같이 나의 아내에 대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 1 2 3 4 5 나는 아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만의 이익을 쉽게 포기한다.
- 1 2 3 4 5 나는 아내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한다.
- 1 2 3 4 5 나는 아내의 감정을 늘 살피고 감정을 이야기할 때 주의하여 듣는다.
- 1 2 3 4 5 나는 아내에게 매일 격려되는 말을 하고 화가 나도 잠들기 전에 해결한다.
- 1 2 3 4 5 나는 아내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내 편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 1 2 3 4 5 나는 아내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며 아내를 위하여, 아내와 함께 기도한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남편을 체크하게 하십시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일지라도 터놓고 이야기하십시오.

---

## 아내들의 체크리스트

---

아내들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자신을 평가해 봅시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5-아주잘함, 4-잘함, 3-보통, 2-잘 못함, 1-못함)

- 1 2 3 4 5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 1 2 3 4 5 나는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이다.
- 1 2 3 4 5 나는 죽는 날까지 이 남편과 살기로 하였다.
- 1 2 3 4 5 나는 성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 1 2 3 4 5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한다.
- 1 2 3 4 5 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2 3 4 5 나는 태도와 행실을 통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보여 준다.
- 1 2 3 4 5 나는 작은 것일지라도 남편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 해 준다.



1 2 3 4 5 나는 남편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내 편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1 2 3 4 5 나는 남편의 영적 동반자라 생각하고 남편을 위하여, 남편과 함께 기도한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체크하게 한 다음 결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 6

### 첫 걸음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부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결혼 생활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당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성경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사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과 이제 하나님 없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존심이나 반항심, 고집 같은 것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운 10가지 성경적 기초를 당신의 삶 속에 세우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자존심과 심령이 깨어져야 하는 한이 있어도 새로 시작하기 위하여 당신의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올바른 결혼 생활에 첫번째로 필요한 것은 먼저 거듭난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기꺼이 돌아서며 당신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  
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결혼 생활을 향한 첫걸음  
입니다.



# 한국 오늘의 양식사

##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차일환 기획/정호균 회계/최석주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발송/임길택 홍보/김대환 상담/김영자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㉔

**행복한 결혼생활**

인 쇄 / 1999. 10. 25

발 행 / 1999. 10. 3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1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4 복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5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6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7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8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9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11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활력을 회복하는 길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 「신앙성장 시리즈」 구독신청 및 선교헌금 안내

청원및 헌금자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				
받는사람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				
	출석교회											직분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부수												헌금입금은행: ( )은행			

##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므로써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할렐루야선교원>

-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제일 : 107-10-109840
- 동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외환 : 026-13-33750-7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 463-070
- 전화(0342)780-9565~7 FAX (0342)780-9569



## 신앙 성장 시리즈 7

### 『행복한 결혼생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결혼생활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공적 결혼에 필요한 10가지 요소를 명백히 제시해 줌으로써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성공적 결혼에 필요한 10가지 성경적 기초

- 평생의 약속을 지켜라
-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다
- 절대적으로 순결을 지켜라
- 남편과 아내의 구분된 역할을 인식하라
- 아낌없이 사랑하라
- 서로에게 복종하라
- 만족스런 성생활을 가져라
- 터놓고 대화하라
- 서로 존경하라
- 상대방을 영적 동반자로 알라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What Will Make My Marriage Work?"를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